참회, 부끄러움 알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⑧ 부끄러움 : '식인 야차의 참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우리 집 화장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에는 양초와 성냥을 가지고 가야 했다. 그런데 가을에는 화장실에 귀뚜라미가 어찌나 많은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다 손으로 잡게 되면 귀뚜라미 다리가 쉽게 부러지곤 했다. 때로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이 생명을 촛불에 태우면서 볼일을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재미로 했지만, 귀뚜라미는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던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녁에 화장실로 가서 촛불을 켜고 손가락 하나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어찌나 뜨겁던지 얼른 불에서 손을 떼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살이 조금 타는 것 같았다. 손이 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정도로도 손이 이렇게 아픈데, 귀뚜라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귀뚜라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참회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손가락이 아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동안 고생도 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동화의 주제가 참회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그것을 회개라 부르든, 아니면 고해성사라 부르든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데 있다.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종교에서 참회를 중시하는 것일까? 이번 동화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식인 야차의 참회'다. 원래의 제목은 '데바담마 자타카(Devadhamma-jātaka)'다. 데바담마는 천법(天法), 즉 하늘의 법을 의미한다. 연못에 살고 있던 식인 야차가 하늘의 법에 관해 물은 데서 유래한 제목이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랜 옛날 바라나시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해 아들을 낳게 됐다. 새 왕비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간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두 아들에게 숲으로 떠났다가 자신이 죽으면 돌아와 왕위를 이으라고 지시했다. 이때 셋째도 두 형을 따라 숲으로 가게 된다.

세 왕자가 히말라야 숲으로 들어섰을 때 셋째는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향했다. 그 연못에는 식인 야차가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법(Devadhamma)'에 관해 묻고 답을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 무서운 괴수였다. 셋째가 다가오자 어김없이 야차가 하늘의 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것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답이 아니어서 셋째는 야차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동생이 오지 않자, 둘째는 그를 찾으러 연못에 간다. 이때도 야차를 만나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그것은 동서남북 네 방위입니다."

이 또한 오답이어서 둘째 역시 야차에게 잡히고 만다. 두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첫째 형도 연못으로 갔다. 야차가 천법(天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한다.

"악을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악의 결과로 찾아올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추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법이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야차는 그동안 많은 생명을 죽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진정으로 참회했다. 그리고 동생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하자, 첫째는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형제인 셋째를 선택했다. 셋째를 잃고 왕국으로 돌아가면 그를 해쳤다는 오명을 쓸 것이며, 이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 · 인과응보 아는 것이 천법"
첫째 왕자 답에 동생들 풀어준 야차
생명들 죽인 악행 부끄러워하며 참회
부끄러움은 양심이 살아 있음을 의미
참회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출발점

첫째의 이러한 마음 씀에 감동한 야차는 두 동생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후 야차는 오계(五戒)를 받고 악행을 멈췄으며, 첫째는 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왕국으로 돌아와 성군이 됐다. 그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다

식인 야차가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살면서 지은 업보에 따라 저승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이다.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 천만 관객을 넘어선 히트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영화를 관람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친구를 괴롭힌 학생들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영화처럼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 같다. 마치 동화 속 야차처럼 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과 함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좋은 교육 소재라 할 것이다.

악행에 따른 인과응보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곧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학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것[知恥]을 사람됨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널리 알려진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오지심이 바로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의 악행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던가. 〈중용〉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知恥近乎勇)."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돼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다.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만, 아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하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 속 식인 야차도 느끼는 부끄러움을 왜 일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까? 먼저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마음이다. 유학에서는 앞서 말한 사단으로 표현한다면,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이다. 대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생긴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양심이 죽었다는 뜻이므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삼독(三毒)이라는 어두운 기운에 양심이 압도돼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인과(因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동화에서 첫째 왕자가 야차에게 말한 '악의 결과로 찾아올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업(業)의 원칙이라 할 정도로 원인과 결과를 중시한다.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善因善果]를, 나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惡因惡果]를 가져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업은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배달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시각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자연법칙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무겁고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어깨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참회하면 마음이 가볍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종교에서 참회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2장경〉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인들과 깊이 공감한 구절이다.

"여러 허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을 잠시도 그치지 않으면, 죄가 몸에 미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점점 깊고 넓어질 것이다. 만약 허물이 있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알아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스스로 소멸할 것이니, 이는 마치 병이 났을 때 땀을 흘리고 나면 점차 병이 낫는 것과 같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서 살아간다. 어찌 보면 그때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공부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잘못했을 때 절 수행을 하면서 참회의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원각경〉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에 경안(輕安)을 얻는다"고 했다. 양심, 즉 불성이 작동하여 참회하는 불자는 삶이 가볍고[輕] 편안[安]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진정 사람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신장 손상으로 투석 받는 미얀마 출신 외아들
"다시 일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고파"

민모 씨, 건설현장서 일하며 부모 부양
복통·구토 끝 장 수술 받고 투석 시작

병원비 2000만 원…쌓이는 치료비에 막막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